

걷고 자전거타기 좋은 생태교통도시 조성

전주시, 차 없는 사람 중심 거리 확대 운영

전주시가 올 한해 걷기 좋고, 버스와 자전거를 타기 편리한 생태교통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 한해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차 없는 사람 중심의 거리를 확대 운영하고,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자전거타기 즐거운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생태교통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는 도로의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총 8차례 가량 진행, 차도 위의 차량을 통제하고 그 공간을 시민들이 주축이 된 계절별 특색 있는 행사의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행사는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에도 연계·추진된다. 시는 팔달로 총경로 사거리부터 풍남문 교차로 550m 구간의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고, 인도 폭을 확대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확대된 인도는 시민편의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스스로 문화공간을 향유토록 해 월드컵 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오는 2월 20일부터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와 도시구조 변화에 맞춘 이용자 중심의 노선개편을 60년만에 추진, 버스타기 편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기존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이 3개의 동·서축과 3개의 남·북축(△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이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으로 다양하게 운행되는 게 특징이다.

노선개편 이후 현재 운행 중인 122개 노선 중 59개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34개는 부분 개편된다. 또, 중북노선 30개가 폐지되는 대신 전주시 내 9개 노선과 완주군 기간선제 15개 노선이 각각 신설돼 총 117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평균배차 간격이 4.6분 감소되고, 평균 운행거리도 한 대당 12.1km 줄어, 시



엄마의 밥상 성금 전달 고수환(악기장) (사)전북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과 이신익(낙죽장) 명인, 오대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이 24일 전주시청 시장실을 방문 '엄마의 밥상' 성금 300만원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내버스가 더 빨리 더 자주 다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 빈도가 적은 농촌형 마을 10곳에는 농촌형 마을택시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사(驛舍)를 품격있는 역사로 탈바꿈시키고, 한옥마을 관광지의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김제·정읍·부안 방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인근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오는 2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4개소(송송동, 완산동, 전동, 인후동)와 호남제일인 인근 월드컵경기장 간이정류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안전한 교통안전도시 만든다

22억 7000만원 투입... 시설물 유지·관리 나서 키로

전주시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기 로 했다.

전주시는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총 2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시민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형 교통안전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천 및 야간에 도 운전자 시인성이 향상돼 안전운전 효과가 큰 고휘도 차선도색 및 횡단 보도 도색에 14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도 안전하고 도시미관 향상 효과가 큰 와이 어 없는 신호등 가로재 교체사업 7억, 야간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횡단보

도 조명등 확대 설치 1억,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1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시민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특성에 맞는 교통관련 시설 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노인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관 내 15개소에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안전헬스, 시인성 포장 등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병행해 어린이 통학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50개 교에 100여명의 안전지킴이를 확보, 하폭길 교통지도 등을 실시하는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노인 등 수요자 눈높이

에 맞는 교통안전체험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한해 교통혼잡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올바른 주차문화질서 정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관광객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대성동에 7100여㎡ 규모의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시는 본격적인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에 나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유동인구가 집중되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는 지난해 12월 지하공영주차장 2개소 246면이 추가 조성한 데 이어,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점차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김영재기자

덕사모, 호성동 사랑의집 방문 생필품 전달 이웃사랑 실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 과·동장 부인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모임 덕사모 회원 10여명은 설명절을 맞아 호성동에 위치한 사랑의집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활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덕사모 회원들은 마음을 모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홀로어르신, 한부모, 조손세대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재 기자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100만원 상당 백미 기탁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감선규)는 설명절을 맞아 완산구 삼천3동주민센터(동장 임양근)를 방문,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쌀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백미(20kg, 33포)를 기탁했다.

/김영재 기자

지적능력 지인 돈갈취한 30대 징역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직장동료에게 공갈로 큰 돈을 갈취한 30대가 징역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래 부장판사는 24일 거짓 언변으로 동료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0,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8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7일 전북의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지인이 모자란 직장 동료 A씨(24,남)에게 괴롭히는 동료들로부터 조폭을 통해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1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

다. 이후 임씨는 54회에 걸쳐 4,68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기는 등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두래 판사는 "피고인이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큰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

전주시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1억 1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 전주시에 등록이 돼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70여대의 조기폐차에 지원된다.

또한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25일 전주시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며, 오는 26일부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액 상한액이 없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연식, 종량,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사업비 소진시에는 사업이 종료된다.

최병집 전주시 에너지전환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에너지전환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전북소방본부, 구조장비 설명회 개최

전북소방본부는 24일 도청 17층 작전실에서 14개업체와 119구조대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장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과 용도에 맞춰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정성 높은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구조장비 보유기준 대비 노후되고 부족한 장비 대형유압장비

세트 등 12종을 대상으로 ▲업체별 구조장비 설명 ▲장비 사용자 주의사항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제10대 구조구급과장은 "올해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구조장비 노후를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 노후 장비 교체로 119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